

엄살부리지마.

#01 (노을)

중경삼림 Sound track '몽환인'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모닥불의 화면에 혜정의 보이스 오버가 울린다.

혜정 안녕 애들아.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줘. 나도 언젠가 이 아픔을 극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모두 이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바래.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줘~

혜정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슬로우 화면으로 보이며 페이드 아웃된다.

#02 텅 빈 건물 (밤)

질은 네온사인이 창에 비추며 들어온다.

타닥타닥

어느 텅 빈 건물 안에 불씨가 꺼져가는 모닥불 근처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듯하다. 마치 약속이 있는 듯 갈색 가죽자켓과 허벅지에 딱 달라붙는 바지, 새빨간 립스틱이 유독 눈에 띄는 혜정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녀는 마치 교통사고라도 난 듯 시체처럼 널부러진 채 바닥에 누워있다. 그런 혜정이는 미동도 하지 않는 채 눈만 껌벅껌벅 거리며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각또각또각또각

혜정이 누워있는 곳으로 누군가 걸어들어온다. 혜정의 친구 수빈이다. 높은 힐과 랩 드레스를 휘감아 입은 수빈. 그녀는 혜정과 말이라도 맞춘 듯이 한껏 차려입은 모습으로 혜정에게 걸어들어온다. 하지만 그녀는 혜정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누워있는 혜정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본다. 수빈이는 그렇게 한참 혜정을 내려다본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빈이가 먼저 운을 떼다. 널부러진 혜정에게 다가와 앉는다.

수빈 어머! 웬일이야. 혜정아 오랜만이다.

너 근데 여기서 뭐하니?

수빈이는 무표정한 얼굴에서 웃음을 지으며 환하게 대답을 건넨다. 혜정도 수빈이의 그런 반응에 멍한 표정에서 묘한 화색이 돌며 대답을 받는다.

혜정 어...! 수빈이구나. 음... 세달? 아니지 1년만인가?

수빈 1년은 무슨 2년도 더 됐을 걸? 졸업하고 우리 한번도 안 봤잖아.

야 근데 너 뭐 하나닌까?

갑작스레 혜정은 숨을 멈춘다. 선명하게 눈을 부릅 뜨며 말한다.

혜정 수빈아 나 좀 죽여줘. 나 너무 아파.

수빈이는 혜정의 아프다는 말에 입술을 살짝 깨무며 정색을 하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미 없는 말을 던진다.

수빈 어떡하니~ 아팠겠다~ 어찌다~

혜정 ...그게 사고 있었어. 나 좀 죽여주면 안 돼? 너무 힘들어서 그래.

수빈 그랬구나~ 힘들겠다~

혜정

수빈이는 계속 의미없는 말을 던진다. 혜정은 그런 수빈의 반응에 맥이라도 풀린 듯, 멈춘 숨을 다시 쉰다.

혜정 응, 아~ 힘들어.... 그나저나 너 뭐하고 살아?

수빈 나야 학교다니고, 알바하고 그냥 사는데...?

나 있지 이번에 아기 고양이 기른다? 볼래?

혜정 진짜? 사진 있어? 보여줘봐. 봐봐.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쇠로 된 야구방망이를 거친 바닥에 끄는 소리와 함께 혜정의 고개가 돌아간다. 귀와 코에 피어싱을 잔뜩 박아 넣은 짧은 머리의 남성이 한명 걸어들어온다. 그는 거친 가죽자켓을 걸쳤는데, 혜정의 전 남자친구 도혁이다. 도혁은 야구방망이를 옆으로 던져 놓는다.

강!

도혁은 아무말 없이 혜정의 옆에 다가가 앉는다. 그런 도혁을 혜정이는 자신을 달래주라는 듯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혜정 도혁아, 와 쫓구나. 우리 오랜만이다.... 그치?

도혁 어. 그러네

도혁은 주변을 한번 두리번 거리다 꺼진 모닥불을 힐끗 본다.

도혁 인스타에 올린거 뭐야? 너 또 무슨 일 있냐?

혜정 사실.... 나 사실 아파.... 진짜 이번에는 정말 아파....

도혁은 혜정의 아프다는 말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푹 쉰다.

혜정 도혁아, 나 정말 죽을거 같아. 너무 힘들어....

도혁 너는 뭐가 그렇게 아프기만 하나?

혜정 아픈 곳이 막 뜨겁고 그래. 나 설마....?

도혁아 나 불치병이라도 걸린거 아닐까?!

도혁 ...그건 내가 아니라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제발 아프면은? 응? 혜정아, 병원을 가. 응?

혜정 도혁아...

도혁은 다소 짜증나는 얼굴로 투명스럽게 아프다는 혜정이의 말을 밀어낸다. 저 멀리 팔짱을 낀 채 짝다리로 둘의 대화를 바라보는 수빈의 모습이 보인다.

도혁 아 진짜 지겹다.

혜정 나 좀 쓰다듬어주면 안돼?

혜정이는 도혁에게 팔을 뺏는다. 하지만 도혁은 누워있던 혜정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목과 이마에 핏대가 보이는 도혁의 얼굴이 보인다. 혜정이는 점점 더 심하게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하고, 뒤에 있던 수빈이는 저 멀리 시선을 돌린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도혁은 있는 힘껏 땀이 맺힌 채 혜정의 목을 더욱 더 세게 조른다.

컱컱컱...컱.....

이제는 혜정이의 고통스러워하는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도혁은 터덜터덜 일어난다. 자켓의 포켓에서 담배를 문다. 지포 라이터를 켜다.

찰칵!

#03 컨테이너 옥상 (낮)

지포 라이터가 켜지고 담배피는 혜정의 손이 보인다.

찰칵!

음음음~

수빈이가 컨테이너로 서서히 올라온다. 혜정이는 편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있다. 이제는 짝이는 가죽 자켓의 옷이 아닌 통이 큰 흰 원피스를 입은 채 혜정은 흥얼거리며 편하게 누워있다.

수빈 이제 괜찮아?

혜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표정으로 담배 한 모금을 뱉은 후 새끼 발가락을 보여준다. 새끼발가락에 작은 찰과상 있다. 심하게는 아니지만 약간은 붉게 부어있다.

혜정 구두가 좀 작았나봐. 새끼발가락 까졌더라?

수빈이는 혜정이를 그럴 줄 알았다면서 통명스럽게 바라본다.

수빈은 혀에 새끼손가락을 댄다. 무표정한 얼굴로 까진 새끼발가락에 침을 발라주며 살살 문질러준다.

'엄살부리지마' 타이틀

수빈 이제 괜찮을거야.

수빈이의 보이스 오버가 들린다.